

유학의 흐름과 河圖洛書 및 사단칠정을 통한 東武 李濟馬의 사상인 형성에 대한 연구

송시원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ream of Confucianism and a Study of Dongmu Lee Jema's Formation of Sasang through Hado and Nock-seo, along with Four Character and Seven Feeling Theory

See Won Song, Jung 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According to Confucianism, the world before Confucius focused on respecting the heaven which meant that everything could be done by the heaven. After the period of Confucianism, Joo-Ja asserted that everything could be done by nature. During the Chosun Dynasty, philosophers such as Seo Kyung-duck, Lee Hwang, and Lee Yi talked about four characters and seven passions of human being. They started to focus more on the inside of human nature. During the la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a philosopher by the name of Dongmugong Lee Jema analyzed that one's nature and feelings can change his or her external matter and the function of internal organs by purity or impurity of one's mind. Based on these analysis, Dongmugong discovered "sasangin" which puts more emphasis on one's state of mind compared to the outside the world. Also, Dongmugong tried to figure out the connections between Confucianism and medical science. If you use change fire and stone theory which is difference between hado andnock-seo to explain four seven theory one's mind could be define as four natural characters and seven feelings. From four seven theory four is ying and seven is yang. This is the method of cure and understand the structure of human body. And also, four natural characters and seven feelings can be divided into heaven and earth. You can see Four natural characters is far more similar to heaven and seven feelings are similar to earth. According to four-seven theory hado is permanent and you can find out 'sasangin' is permanent also. Since seven feelings are influenced by sam-jae, you can analogize there are 21 different types in 'sasangin'. An underlying principle should there be 28 different types of sasangin instead of 21 different types of sasangin but one quater of sasangin is hidden according to samhyuniljang theory. All creations in the world are organized by unification of the great absolute and symmetry distinction of yingyang. With these facts identity of the heaven, earth and man which is named samjae generates symbols of independent sasang. And also, sasang generates relations between five element ,six energy and the six family relation. From six family relation comes seven feelings of man which creates a category of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and unification of nine palace. All these process are united.

Key words : Dongmugong, Sasang, Samjae

서 론

한의학에서 宇宙는 太極, 陰陽, 三才, 四象, 五行, 六氣, 七情,

八卦, 九宮, 十神이라는 象數理를 통한 易으로 이해한다. 太極이라는 본체의 통일성과, 陰陽이라는 대칭적 차별성과, 三才라는 天人地의 주체성과, 四象이라는 표상의 독립성과, 五行이라는 상호의 관계성과, 六氣라는 환경과, 七情이라는 心理와, 八卦라는 範疇와, 九宮이라는 종합성으로 宇宙의 구성을 파악한다.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4/12/06 · 수정 : 2005/01/03 · 채택 : 2005/01/27

先天學은 心法이다. 「易學啓蒙」에 보면 先天의 형성은 사

랍의 마음이 갖고 있는 법칙이라고 하였다¹⁾. 先天의으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天地人의 人으로써, 四象의 四象人으로, 환경과 심리와 범주를 통해 변화해가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결국엔 天地와 비교해 사람을 살펴봄에 心身으로 구분하지만, “心爲一身之主宰²⁾”라 하여 心을 중심으로 先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天과 後天의 차이가 河圖와 洛書의 金火交易이라고 한다면, 四金과 七火가 사람 先天 變化의 중심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心과 연계해 볼 때 四端과 七情으로 분류된다. 四端七情은 性理學의 핵심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학과 성리학체계를 알아야 한다.

동무 이제마 선생은 사상인을 論할 때 先天의으로 타고나는 품부으로써 각각 사상인을 구분함에 四端七情을 이용하여 설명하였으니, 이는 역사적인 유학의 흐름 및 발전을 알아야 참 뜻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 後世方이라 부르는 처방들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陰陽의 편차에 의한 病證의 변화에 맞추어 치료하는데 반하여, 四象醫學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體質적인 陰陽의 편차에 의한 病證의 변화에 맞추어 치료한다.

四象醫學을 연구함에 있어 儒學史 및 四端七情에 대하여 고찰하고, 인체의 형성과 金火交易·太極·陰陽·三才·四象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五行이 皇極으로 연관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던 중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유학의 흐름과 당시 유학사상에 대한 이제마의 가치관

1) 유학의 특징

儒家란 공자를 宗師로 모시며 그의 학설을 받드는 학파로 춘추 말기에 공자가 창립하였다³⁾. 춘추 말기는 중국이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는데, 공자의 사상은 이러한 과도기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생겨났다⁴⁾. 유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유학은 공자를 宗師로 모시고 그의 언행을 최고 법칙으로 간주하였다. 유학의 원전은 「詩經」, 「書經」, 「禮記」, 「樂記」, 「周易」, 「春秋」의 六經으로 유가사상은 주로 六經 속에 들어 있는 사상을 발휘한 것이니, 仁義를 제창하고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유학은 윤리도덕 학설로 유학자들이 제창한 인의는 모두 이러한 봉건 윤리 도덕으로 봉건 사회 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으로 인의를 다할 때만 비로소 바라던 목적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군신·부자·부부·형제 등의 윤리 도덕 관계를 수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孝悌를 핵심 綱常으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治國安民이다. 개인이라는 사회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있고 아울러 끊임없는 수양을 통하여 그 책임감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주체의 의식과, 주체의식이 발휘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를 위해 이익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는 객체에 대한 효력이 그것으로, 六經에서 말한 “格物致知, 誠意正心, 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治國安民의 실질인 것이다. 통틀어 보면 유학은 인간 자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를 진행한다. 즉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점차 사회와 우주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학은 현실성이 강하며 인본주의적 특색이 짙어진다. 유학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소홀한 채 인생에 대한 인식에만 온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유학은 서양철학에서와 같이 순수한 지식론·방법론·사변 철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 윤리 도덕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

2) 유학의 역사적 흐름

(1) 性理學 이전

유학은 창립 이래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국 전통 사상의 주류가 되어 사회 각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유학의 번영과 더불어 그 내부에는 이론적인 논쟁으로 파벌이 형성되었다. 또 정통과 이단, 주류와 지류로 나뉘어 유학은 몇 차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先秦시대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가 서거한 지 오래되지 않아 유학은 8개 학파로 분열되었다. 전국 시기 백가쟁명 가운데 유가는 다른 학파와 대립하는 것 외에도 내부의 각 파간의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특히 性善說의 孟子와 性惡說의 荀子が 중요하다. 그 후 秦始皇의 焚書坑儒 등으로 쇠락하였지만, 韓武帝때 董仲舒의 주장으로 다시 부흥하였다. 이때부터 儒術은 孔孟의 사상을 위주로 하고 다른 학설을 융합시킨 종합체로 발전하였다. 또 儒라는 명칭도 이때부터 지식인의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今文經學의 대표자인 董仲舒는 天人感應說을 제창하였는데 天은 자연과 인간 세상을 주재하는 인격신이며, 음양오행의 변화는 바로 하늘이 내린 德刑이나 賞罰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철학 사상은 유학의 천명관과 음양오행 사상의 결합체이다. 한대의 유학은 유가의 윤리사상을 三綱五倫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이것은 오랫동안 봉건 통치 계급의 중요한 사상적 무기가 되었다⁶⁾. 魏晉시기에 이르러 형식과 내용이 번잡하던 經學은 끝내 玄學으로 대체되었다. 현학은 실제로 도교의 영향을 받아 유학으로 들어선 것인데, 이시기 유학은 兩漢 경학의 번거로움과 천인감응설 등의 신비한 요소를 제거하고 추상적 사유의 수준을 크게 높인 것이다. 隋唐때는 불교가 전성기를 맞았고, 그 시기 일부 지식인들은 불교에 대한 신앙과 그 이론의 연구를 시대적 조류로 여겼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학의 지위는 흔들리게 되었다. 그러나 당나라 중엽에 이르러 韓愈가 유학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유가 사상의 도통설을 제기하였다. 한유는 「大學」 등 전통의 사상 자료를 이용하여 불교와 노자 사상에 맞섰을 뿐 아니라, 宋明의 道學을 처음으로 이끈 관념론 철학자였다. 그 외 柳宗元은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학으로 끌어들이 후세의 理學 사상의 단초를 마련하였다⁷⁾.

(2) 性理學

북송은 5대 10국의 분열에 종말을 고하고 漢族을 주체로 한 다민족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및 사

1) 주희, 역학계몽, 예문서원, 1999, p. 141. “又曰, 先天學, 心法也, 故圖皆自中起, 萬化萬事, 生於心也. 又曰, 圖雖無文, 吾終日言而未嘗離乎是. 蓋天地萬物之理, 盡在其中矣.”

2) 송일병의, 사상의학, 집문당, 1997, p. 442.

3) 주철성 외,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예문서원, p. 17.

4) 주철성 외,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예문서원, p. 19.

5) 주철성 외,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예문서원, pp. 34-37.

6) 前掲書, pp. 40-41.

7) 前掲書, pp. 42-43.

회 각 계층 사이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의 교훈을 되돌아보고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구상하였다. 북송 시기 주돈이는 一과 多의 관계에서 사물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논하였다. 태극설에 담겨있는 理氣의 결합으로 만물을 생성한다는 사상적 요소는 우주 본체론의 길을 다져 주자학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재의 一物兩體論이나 심성론은 주희 리학의 기본 원칙이 되었고, 이정 형제가 제기한 性卽理라는 학설 등은 주희에 의해 직접 계승되었으며, 장재와 이정은 본체론과 윤리학을 통일하였는데 이 역시 주희가 계승하였다. 주자학은 북송을 거쳐 남송 시기에 이르러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주희는 주자학의 집대성자로 본체론, 방법론, 인식론, 윤리관 등 각 방면에서 전대의 철학을 전면적으로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채워 넣어 理·氣·物·理라는 논리 구조를 확립하였다. 明清시기의 주자학은 관학으로 인정되어지만 별다른 학술 발전은 없었고, 공리공론으로 흘러 인심을 통제하는 역할을 상실하였다⁸⁾.

(3) 陽明學·實學

陽明學은 明代 王守仁이 세웠다. 心卽理, 致良知, 知行合一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체계적인 심학 이론의 건립은 중국 고대 철학의 이론적 사유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주었다⁹⁾. 명나라 중엽에 이르러서는 주자학을 대체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實學은 實事求是의 약칭으로, 16세기 초부터 중엽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적인 사유형태가 구성되었다. 북송때 이미 程頤가 처음으로 實學개념을 사용한 이래 理學者들이 자주 사용하였다. 명칭 실학의 기본 특징은 實을 숭상하고 虛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은 우선 시대적 폐단을 폭로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明의 멸망은 사대부 계층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에게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明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동경하게 만들었다.

通經致用, 救世圖存의 특징이 있는데, 通經致用은 사회에 직면한 현실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기풍이며 심성을 공답하는 것은 俗學이라 하여 무용한 것으로 생각했다. 救世圖存은 세상을 구하고 국가를 보존한다는 뜻으로 사회 현실에 직면하여 역사와 지리를 탐구하고 부국의 방안을 모색하였다¹⁰⁾.

3) 조선시대의 儒佛仙

조선 건국세력은 주자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아 破邪顯正, 獨尊儒術이라는 기본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사악함의 하나로 간주된 불교와 도교는 철저하게 비판과 배척을 받았다¹¹⁾. 초기 주자학 시기의 인물로는 정도전·권근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도전이 주희이론에 근거해 불교를 논박하는데 힘썼지만 권근은 주자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 천인합일의 사상을 사회 윤리 도덕과 사회 정치관에 응용하여, 조선 왕조의 사회 질서에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四端七情의

관계를 논하였는데, 16세기에 이르러 사단칠정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황과 奇大升 등의 학자들 사이에 오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四七論爭은 한국에서 약 300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한국 유학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기원은 권근에게서 비롯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¹³⁾. 15세기에 들어서자 사회 모순은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통치 계급 내부의 모순도 날로 증폭되어 勳舊派, 節義派, 淸談派, 士林波 등 여러 파로 분열되었다. 그 후 士禍로 이어지게 된다. 한국 주자학의 수준을 최고봉에 이르게 한 대표적 인물로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들 수 있다.

양명학은 주자학과 그 세력의 원천적인 봉쇄와 정치적인 탄압으로 자유로운 학문 연구와 강화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양명학은 家學이라는 형식으로 일부 문하생과 친인척 사이에서만 전수되어 근근이 그 명맥을 이어왔다. 열악한 학술 환경은 한국 양명학의 발전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적 영향력이 없었음은 물론 강력한 학파나 시대적 사조를 형성하지도 못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양명학을 받아들인 학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겉으로는 주자학을 표방하였다. 이에 스스로 양명학의 사상적 취지와 그 학문적 방법을 따른다고 밝히고서 연구에 종사한 학자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¹⁴⁾. 이러한 양명학은 한국에선 권력을 가진 주자학 세력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오다가,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정제두에 이르러 이론체계가 완성되고 한국 양명학의 본 모습을 드러내었다.

4) 당시 유학사상에 대한 이제마의 가치관

동무 이제마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성리학적 사고가 전체를 지배하던 전제군주왕조였고, 六經四書를 科目으로 한 科擧制度를 통하여 인재를 등용하던 봉건사회였다. 그 자신 또한 經書를 通讀하여 그 시대의 유명한 유학자들과 學問·思想에 대해서 교분을 나누던 유학자였다¹⁵⁾. 동무의 사상적 독창성은 당대의 문제 의식을 해결하면서 획득했던 것이므로 思想醫學의 사상도 그 이면에 흐르는 유학사적 문제와 연계시켜 봐야한다¹⁶⁾. 세상 이치의 초점(主宰者, 主體, 本體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공자이전은 天을 숭상하며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렸다고 하여 盡人事待天命을 외쳤고, 시대가 흐르면서 주자의 시대엔 모든 것이 性에 달렸다고 하여 性卽理라 하였으며, 조선으로 전해져 서경덕·이황·이이 등을 거치면서 사단칠정 즉 心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하여 인간에 대한 연구가 세상의 초점이 되었다.

“本體에 대한 結論은 易에서는 四德의 元亨利貞이고 儒學에서도 道德으로 脈을 같이하지만, 性理學과 易의 窮極存在가 天을 主體로 하고 人을 用으로 삼았으나, 이제마는 人을 主體로 하고 天을 受用한 것으로 思慮된다¹⁷⁾.”고 한 것처럼 天·性·心이 모두 같은 것이지만, 생각의 초점, 즉 관점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이제마는 人間中心의학을 주장하여, 天地中心의 運氣學을 배제하였다. 膽·三焦·胞·命門은 모두 相火의 作用과 직접적인 關聯이

8) 前掲書, pp. 190-191.

9) 前掲書, pp. 200-202.

10) 주철성 외,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예문서원, p. 255.

11) 前掲書, pp. 342-343.

12) 前掲書, pp. 102-103.

13) 前掲書, p. 213.

14) 前掲書, p. 315.

15) 김달래, 이제마의 학문적 연원과 사상의학의 형성시기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2, No.1, 1990, p. 1.

16) 김창민, 류순섭, 이제마 사상체질의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2002, p. 31.

17) 최병일, 이제마의 본체관과 그 배경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2, No.1, 1990, p. 40.

있는 臟器이다. 相火의 理論은 內經에서부터 나타나있으나 相火의 運用이나 理論的 根據는 運氣學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제 마는 膽·三焦·胞·命門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람을 살림에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無可論적 체질론의 측면에서 운기는 본질적 체질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氣적인 면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東醫壽世保元」 중 소음인 中伏節候의 直中陰經 乾霍亂關格之病의 예나 少陽人 清明節候 發狂譫語의 치험례 등에서 낱자와 절기를 반영한 것을 볼 수 있으니 이는 질병의 氣적인 측면에서 運氣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理적인 측면에선 완전히 배제하였으니 膽·三焦·胞·命門의 排除는 相火를 排除한 것이 되며 결국에는 運氣論은 東武公의 臟腑論에서는 排除되었음을 의미한다.

「四端論」에서 太少陰陽의 臟局長短의 差異가 五行이나 運氣에 의한 것이 아닌 天理(하늘로부터 받은 이치)變化에 의해 같이 존재하고, 心之淸濁에 의해 달라지는 性情에 의해 사상인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⁸⁾.

東武公이 運氣學(天)을 排除하고 人中心 醫論을 펼치려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초기사회가 불교와 도교를 철저히 비판하고 배척하였던 반면 동무공은 四端論에서 “聖人之心 無慾云者 非淸淨寂滅如老佛之無慾也”라 하여 老佛을 인정하고, 少陽人 泛論에서 “少陽人 吐血者 必蕩滌 剛愎 偏急 與人并驅爭塗之 淡食服藥 修養如釋道 一百日則可以少瘳, 二百日則可以大瘳, 一周年則可以快瘳, 三周年則可保其壽¹⁹⁾.”라 하여 修養如釋道 즉 석가의 수련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정략적인 道교·불교의 배척보다는 그 근본 이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조선 實學 시대의 立場과 같은 見地에서 理解해 보면, 당시 皮폐된 性理學을 克服하고 孔孟時代의 實證的이고 實用的이었던 原始 儒學의 精神을 恢復하는 것이 目標였다. 東武公 역시 老佛을 인정하면서도 老佛 및 五行 運氣 思想이 皮폐되어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이를 拒否하고 本性을 찾길 바란 것이며 運氣學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주재자로 서기를 바라며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무공은 四端論에서 老佛을 인정하였으니²⁰⁾, 少陽人 泛論에서 修養如釋道 즉 석가의 수련을 인정하였다²¹⁾. 이는 정략적인 道교와 불교의 배척보다는 그 근본 이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太少陰陽의 臟局長短의 差異가 五行이나 運氣에 의한 것이 아닌 天理(하늘로부터 받은 이치)變化에 의해 같이 존재하고, 心之淸濁에 의해 달라지는 性情에 의해 四象人이 나타나는 것임을 四端論에 “太少陰陽之臟局長短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淸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²²⁾.”라 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이제마의 四七論에 대한 고찰

四端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 즉 선천적이며 도덕적 능력을 말하고, 七情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현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을 말한다. 四端은 「孟子·公孫丑上」에 나오는 말로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의 네 가지 도덕적 감정을 말한다. 그리고 七情은 「禮記·禮運」에 나오는 말로 喜·怒·哀·懼·愛·惡·欲의 일곱 가지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가리킨다.

원래 四端은 仁·義·禮·智의 덕목과 관련된 윤리적 범주에, 七情은 인간의 감정을 총칭하는 인성론의 범주에 각각 속하여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던 말이었다. 그러나 宋代에 성리학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두 개념은 인간 심성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도덕적 성격을 띠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상반된 의미로 인식되어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곧 성리학에서는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心性이 일치한다고 하는 天人合一의 명제 아래, 우주 자연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 理氣論을 발달시켰고, 다시 이를 근거로 하여 인간 심성의 발생 과정과 그 작용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실천의 철학적 근거를 해명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四端七情의 분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인간의 善한 性만을 뜻하는 四端과 善惡을 고려하지 않은 자연스런 情 전체인 七情을 理氣로 해석하는 데에는, 性情心の 理氣論的 규정이 어떻게 전제되며, 理氣의 의미와 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의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제마의 四端七情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性情論

동무 사상은 유학을 근본으로 해서 전개된 사상이지만 당시의 주류인 성리학의 흐름과는 그 경향을 달리한다. 그러나 사용한 용어가 모두 四書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孔孟의 원시 유학의 본의에 접근하면서 기존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의학과 결합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대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깊이 탐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무 四端의 특징은 사람마다 仁義禮智를 지니게 되는 方法이 다를 수 있고, 그 性에 따라 命 또한 다르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세상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을 四象을 빌어 具體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동무는 四端之心을 伊川·孟子的 性情이 분리되거나 혹은 仁에 포함된 단순한 관계보다는, 이것을 事와 物, 心과 身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상관적 연계성으로 나타내었다²³⁾.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哀怒喜樂의 性²⁴⁾과 情을 다스려나가는 과정에서 人體의 各 部位別로 지니게 되는 能力으로 天命을 다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論하였다. 天命은 自身이 타고난 性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天命을 다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天·人·性·命에 대하여 論하였다.

18) 송일병외, 사상의학, 집문당, 1997, p. 436. “太少陰陽之臟局長短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淸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欲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19) 송일병외, 사상의학, 집문당, 1997, p. 472.

20) “聖人之心 無慾云者 非淸淨寂滅如老佛之無慾也”

21) 송일병외, 사상의학, 집문당, 1997, p. 472. “少陽人 吐血者 必蕩滌 剛愎 偏急 與人并驅爭塗之 淡食服藥 修養如釋道 一百日則可以少瘳, 二百日則可以大瘳, 一周年則可以快瘳, 三周年則可保其壽.”

22) 송일병외, 사상의학, 집문당, 1997, p. 436.

23) 趙見晟, 이제마의 격치고증 「儒略」에 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 3, No. 1, 1991, p. 49.

24) 先天的으로 타고난 마음가짐 中 好善이 無雙한 本性和 先天的으로 타고난 마음가짐 中 邪心이 無雙한 本性

「四端論」은 타고난 性情의 비율차이에 따른 四臟生理力 活力素를 담은 그릇형태(臟局成形)의 大小(天稟之已定)와, 이에 따른 사람의 네 가지 象(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 그리고 四臟生理力의 活力素를 保存하기 위한 後天的인 性情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論하였다. 그리고 性情이 각각 지니고 있는 屬性과 이것이 四臟에 미치는 影響, 그리고 이에 따른 四臟의 屬性에 대하여도 論하였다.

2) 天人性命論

天人性命論은 「東醫壽世保元·性命論」의 내용으로 四象構造論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현상과 사물은 四象 즉 事心身物로 귀납할 수 있고, 이는 우주·사회·인체현상을 설명함에 복합적인 사상구조를 형성한다.天人관계를 중심으로 본체론적으로 살펴보면 天機에 耳目鼻口를 人事에 肺脾肝腎을 상응시켰다. 天은 보편적 원리, 普遍者, 包括者, 선천적 구조, 形而上者로, 人은 개별적 사물, 特殊者, 個別者, 개체, 후천적구조, 形而下者로 파악되고, 이들은 상응관계를 유지한다. 인체의 사상구조를 耳目鼻口(天), 肺脾肝腎(人), 頷臆臍腹(性), 頭肩腰臀(命)으로 구분하여 생리적 현상을 설명하였다²⁵⁾.

事心身物과 性情 및 性命을 이 구조에 대입하면, 天機는 性의 범주이므로 天性으로 표현할 수 있고, 人事는 情과 命의 범주이므로 情命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頷臆臍腹의 性은 存其心 養其性하는 것이므로 心性으로 표현할 수 있고, 頭肩腰臀의 命은 修其身 立其命하는 것이므로 身命으로 표현할 수 있다²⁶⁾. 다시 표현하면 天은 先天的으로 타고난 마음가짐 中 好善이 無雙한 本性을 말하므로 天性으로 表記할 수 있고, 人은 사람이 後天的으로 情을 克復해나가는 과정에서 堅立하는 性力으로 갖추어지는 命을 말하므로 情命으로 表記할 수 있으며, 性은 先天的으로 타고난 마음가짐 中 邪心이 無雙한 本性을 存其心 養其性하는 과정에서 그 心에 지니게 되는 性을 말하므로 心性으로 表記할 수 있고, 命은 情命을 修其身 立其命함에 天性의 能力을 널리 實踐하는 善人들과 더불어 하므로 自身도 天性의 能力을 널리 實踐하는 과정에서 그 身에 지니게 되는 命을 말하므로 身命으로 表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性命論」과 「四端論」을 도해하면 2) Table 1, 2와 같다²⁷⁾²⁸⁾.

3) 四端

周易에서는 元亨利貞을 四德으로 설정하여, 春夏秋冬의 四時, 木火金水土의 五行, 東西南北中央의 四方, 仁禮義智信의 五常²⁹⁾을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五常을 五行에 배속하면 仁은 木, 禮는 火, 義는 金, 智는 水에 해당된다. 그러나 仁禮義智는 天性·心性·情命·身命 모두에 존재하니 드러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다.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는 心을 주재자로 보고 先天學을 心法으로 규정하여 心性에 배속하였으므로³⁰⁾, 仁禮義智를 우선

心之四端에 배속해 보았다(Fig. 1).

Table 1. 인체의 사상의학적 구조와 능력의 도해

頭部			
腹部	腹裏部	背裏部	背部
天機	本性 (天)	人事	人命 (人)
大同也 [天性] (觀於天)	博通也 [心性] 行其知·存其心 養其性	各立也 [情命] (立於人)	獨行也 [身命] 行其行·修其身 立其命
(極蕩也) 天時←聽·耳 (太陽人)	頷·審榮 (太陰人) 驕心	上焦 事務←達·肺 (少陽人 才幹)	頭·識見 (少陰人) 奪心
(極大也) 世會←視·目 (少陽人)	臆·經綸 (少陰人) 矜心	中上焦 (克成也) 交遇←合·脾 (太陽人 才幹)	肩·威儀 (太陰人) 侈心
(極廣也) 人倫←嗅·鼻 (太陰人)	臍·行檢 (太陽人) 伐心	中下焦 (克整也) 黨與←立·肝 (少陰人 才幹)	腰·才幹 (少陽人) 懶心
(極遜也) 地方←味·口 (少陰人)	腹·度量 (少陽人) 夸心	下焦 居處←定·腎 (太陰人 才幹)	臀·方略 (太陽人) 竊心
足部			

Table 2. 四象人의 能不能 도해

四象	性情	本性(타고난 것) 慧覺→德		人命(克服한 것) 資業→道	
		天性	心性	情命	身命
太陽	哀	耳聽天時 (極蕩也)	濟有行檢 (不可伐也)	脾合交遇 (克成也)	臀有方略 (必無竊也)
少陽	怒	目視世會 (極大也)	腹有度量 (不可夸也)	肺達事務 (克修也)	腰有才幹 (必無懶也)
太陰	喜	鼻嗅人倫 (極廣也)	頷有審榮 (不可驕也)	腎定居處 (克治也)	肩有威儀 (必無侈也)
少陰	樂	口味地方 (極遜也)	臍有經綸 (不可矜也)	肝立黨與 (克整也)	頭有識見 (必無奪也)
		人皆知也 好善이 無雙也	人皆遇也 邪心이 無雙也	人皆賢也 惡惡이 無雙也	人皆不肖也 怠心이 無雙也



Fig. 1. 仁禮義智 배치

金火交易으로 後天에 생명이 탄생하고, 氣가 움직이며, 金木定質로 현상의 원리가 정해지고, 水火互根으로 운행의 원리가 정해지니 이에 만들어진 것을 心之四端으로 設해 보면 다음과 같다(Fig. 2, 3).

4) 七情

四端의 仁禮義智를 喜怒哀樂으로 치환하여 七情을 넣으면 Fig. 4와 같이 된다.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 人趨心慾³¹⁾이라 하였으므로 추구하는 중심 가운데에 慾을 배치하였다.

慾에 가까워지는 것이 惡이고, 멀어지는 것이 愛이다. 愛위주이면 그릇이 커지고 深哀·深怒·深喜·深樂으로 表病者와 관계

25) 송일병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p. 66-67.
 26) 송일병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 435. 人之臆臍腹之中 靈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 養其性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蔽也 修其身 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27)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上,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 44.
 28)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上,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 83.
 29) 김석진, 대한주역강의의 上經,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9, p. 155.

30) 송일병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 442. “心爲一身之主宰 負諸背心 正向腑中 光明常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忖, 臆臍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31) 송일병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 436.

되고, 惡위주이면 그릇이 작아지고 浪樂·浪喜·暴怒·暴哀로 裏病者와 관계된다³²⁾. 결국 四象人의 判別은 七情의 상호관계를 찾아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가를 보고, 喜怒哀樂으로 드러난 性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었는가를 살펴 분류 통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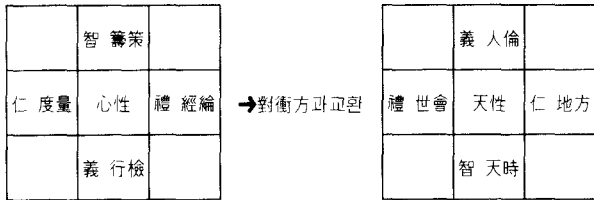


Fig. 2. 性에서의 仁義禮智

→ 情命은 心性에서 母子之間에 상부상조로 위치를 바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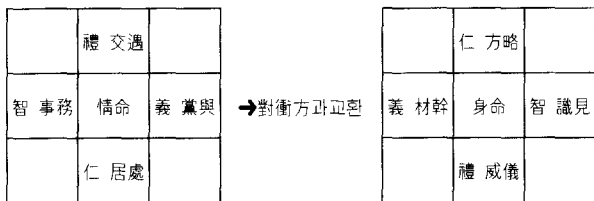


Fig. 3. 命에서의 仁義禮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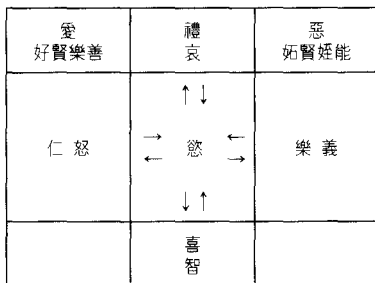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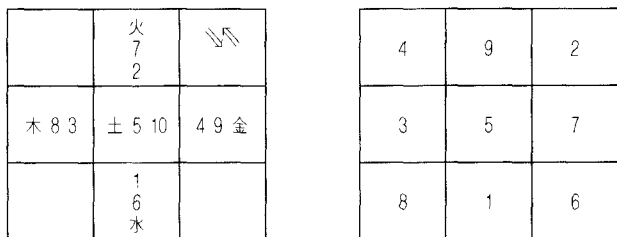


Fig. 4. 喜怒哀樂의 배치

3. 性命과 四端 및 七情의 河圖洛書를 통한 해석

1) 金火交易과 四端七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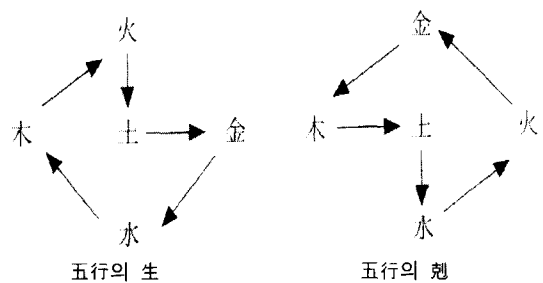
7- 陽火, 4- 陰金
先天 左轉相生원리 (待對相剋) → 金火交易 後天 右轉相剋원리 (待對相生)

Fig. 5. 河圖洛書의 金火交易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金火交易이 왜 일어났는가? 先

天에서 左轉相生에 오차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相生은 安하고 靜하러하고, 相剋은 不安하고 動하러 하므로 火와 金이 자리를 바꿔 河圖와 洛書가 서로 제 위치를 찾기 위해 金은 火로 火는 金으로 順行하여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先天과 後天이 합하여서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一六三八는 奇數가 生數가 되고, 偶數가 成數가 되니 水木 相生이면 靜하고 安하여 不交하여 不遷하고, 二七四九는 偶數가 生數가 되고, 奇數가 成數가 되니 火金 相剋이면 動하고 不安하여 交하여 遷하니 河圖가 洛書가 될 때 金火만 交易하게 되는 것이다.

河圖를 선천의 천문도요, 洛書를 후천의 지리도로 인식해볼 때 天의 周圍에는 日月의 行도로 표준이 되니 河圖之圖을 取하여 東西南北이 列이 되고 南七陽盛之數가 配가 되어 4×7=28로 28宿이 日月의 별자리를 나타내고, 天을 人에 빗대어 心과 身으로 나누어 보면 人 中 天은 心되고, 心의 體用이 곧 河洛의 理致이며 四象人도 역시 心之四端에서 나오니 金火交易이라는 河圖洛書의 변화 수인 金에서 陰數인 四를 火에서 陽數인 七을 빌어와 四端 七情을 상징할 수 있고, 東西南北이 列을 四象 및 四端으로, 南七陽盛之數가 配가 됨에서 七情을 표현할 수 있겠다. 地의 周圍에는 海陸의 周環이 표준이 되니 洛書之方을 取하여 四正四隅八方이 列이 되고 東三陽著之數가 配가 되니 8×3=24로 24方이 海陸의 羅列된다. 또한 四端과 七情은 天地로 나누어 본다면 좀더 先天的인 四端을 天으로, 四端보다 後天的인 七情을 地로 볼 수 있는데, 四端을 통해 天의 河圖는 不變을 의미하니, 四象人은 넷으로 固定不變하게 되고, 七情은 세상의 영향을 三才로 받아 7×3=21로 21유형인을 유추해 낼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보면 7×4=28로 28유형인이어야 할 듯하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이치는 三顯一藏의 원리에 의해 1/4은 숨고, 3/4만 나타난다. 따라서 21유형이 있게 된다.



三顯一藏이란 이상에서 보면 五行的 生에서 순차적 관계상 동방에서 남방, 남방에서 중앙, 중앙에서 서방, 서방에서 북방으로 생하는데 북방과 남방만이 극을 하여 1/4의 영역이 剋을 하고 있고, 나머지 3/4의 영역은 生을 하고 있다. 또한 五行的 剋에서 순차적 관계상 동방에서 중앙, 중앙에서 북방, 북방에서 서방, 서방에서 남방으로 극하는데 북방과 동방만 생하여 1/4의 영역이 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3/4의 영역은 극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 생극의 법칙에서 三顯一藏法이란 오행의 生剋 법칙에서 3/4은 드러나고 1/4을 숨는다는 隱顯의 법칙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사람 형성시 어머니속에서 형성될 때 오차를 찾아서 사람의 선천적 오차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이 四七論이

32) 송일병외, 사상외학, 서울, 집문당, 1997, p. 137. "太陽人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有浪喜深樂 不可不戒"

고, 心에서는 四端七情이니, 四는 陰(善으로 음수를 따옴)에서 七은 陽(惡으로 양수를 따옴)으로 따오면, 四端과 七情사이의 관계에 의해 그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게 治療방법이며 사람을 보는 方法된다.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四象人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東醫壽世保元注解」에서 분석한 四象人의 21유형이 타당해 보인다. 여기에서는 少陰人 表病에서 腎陽困熱性 病證(=鬱狂病)을 타고난 사람, 鬱狂病 中 廣義의 亡陽病을 타고난 사람, 大腸怕寒性 病證(=亡陽病)을 타고난 사람의 셋으로 구분하고³³⁾, 少陰人 裏病에서 太陰病과 少陰病의 각각 2경우 총 넷으로 구분하였으며³⁴⁾, 少陽人 表病에서 結胸病(=脾陰困熱性 病證)을 타고난 사람, 亡陰病(腸胃畏寒性 病證)을 타고난 사람의 두 경우 총 셋으로 구분하고³⁵⁾, 少陽人 裏病에서 亡陰病(=裏熱病)을 타고난 사람의 두 경우, 消渴病을 타고난 사람, 陰虛病을 타고난 사람의 넷으로 구분하였으며³⁶⁾, 太陰人 表病에서 長感病의 한 경우로 구분하고³⁷⁾, 太陰人 裏病에서는 燥熱病을 타고난 사람의 두 경우, 腿脚無力病을 타고난 사람의 두 경우 총 넷으로 구분하였으며³⁸⁾, 太陽人 表病에서 解休病³⁹⁾, 裏病에서 疝脹反胃證⁴⁰⁾의 총 두경우로 구분했다. 이와같이 少陰人 일곱 경우, 少陽人 일곱 경우, 太陰人의 다섯 경우, 太陽人의 두 경우 총 21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필자도 이와 같이 七情의 天人地 三變의 곱한수로 二十一類型 혹은 四端七情의 곱한 수로 二十八에서 三顯一藏法을 적용하여 28의 3/4인 二十一類型으로 분석하는 바이다. 이는 心의 四端七情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며, 「格致叢」 卷之二 「反誠箴」에서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⁴¹⁾”와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物心身之心, 四象之心也.⁴²⁾”에서 말한바와 같이 太極, 兩儀, 四象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은 오로지 心이며 결국 心을 통해 四象人이 나오고 心으로 귀결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四象人은 四端이라는 性에서 나왔으니 타고난 이후엔 不變하는 것이며, 二十一類型人은 情에서 나왔으니 哀怒喜樂情으로 타고난 부분과 愛惡慾의 변화하는 부분이 함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性命論의 방법 이외에 運命論의 방법으로 범주를 넓혀보면, 四象人이 二十一類型的 表裏病을 타고나는 命的인 해석과, 運의 好惡에 따라 變하게 되는 運의 인 해석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2) 四象과 三才·五行과의 관계

陰陽과 三才의 관계는 周易 繫辭下傳에 “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 六 六者 非他也 三才之道也⁴³⁾”라 하여 통일적인 총체관념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三才와 四象 및 五行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皇極經世」에 “天 體數四而用三 地 體數四而用三 天剋地 地剋天 而剋者在地 猶晝之餘分在夜也. 是以 天三而地四 天有三辰 地有四行也. 然 地之火 且見且隱 其餘分之謂耶⁴⁴⁾”, “日月星辰 共爲天 水火土石 共爲地 耳目鼻口 共爲首 髓血骨肉 共爲身 此乃五之數”라 하여 三과 四와 五의 체용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三才는 陰陽에 관찰자 혹은 중간자가 더해진 상태로써 관찰자는 관찰자로 머무르지 않고 3개의 동등한 상태가 된다. 四象의 數가 되면 性質과 位가 정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웃놀이로 예를 들어보면 時間과 空間의 天地속에 사람이 모여, 웃이라는 네 개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도개겉웃모라는 다섯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三才와 四象과 五行을 體用變관계로 이해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대뇌피질에서 연합영역과 감각영역으로 나눌 때 연합영역에 관념(Idea, 念, 선택) 이성(Cognition, 知, 관심) 감성(Emotion, 情, 흥미) 오성(Reason, 意, 욕망)의 4가지 구성원을 통하여 정신구조가 형성되고, 감각영역에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구성원을 통해 오감이 형성되는 것도 四象과 五行의 用變例가 되겠다.

東武의 四象개념인 事心身物을 三才에 배치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三才의 人을 두가지로 나누는 방법으로 天地는 事物 즉 자연으로 인식하고, 人을 둘로 나누어 人의 요소인 心身을 배치하니 無形인 心이 人中天이 되고, 有形인 身이 人中地가 된다. 다른 한 방법은 「格致叢·儒略」의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⁴⁵⁾”에서 착안한 방법으로 物宅身 즉 物과 身의 관계를 地, 身宅心 즉 身과 心의 관계를 人, 心宅事 즉 心과 事의 관계를 天으로 보는 관계론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三才분류법이 전자이고, 상호의 관계성 중시하는 三才분류법이 후자의 경우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Fig. 6과 같다.

	관계론적 三才	개체론적 三才	人中陰陽	太極
事	天 人 地	天		
心		人	心	心
身		地	身	
物				

Fig. 6. 事心身物의 三才배치

「皇極經世書」에 보면 “혹자가 말하길 황극경세에서 금목 수화토의 오행을 놓아두고 수화토석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일월성신은 하늘의 사상이고, 수화토석은 땅의 四體요, 금목수화토는 오행이다. 사상과 사체는 선천이고, 오행은 후천이니, 선천은 후천이 나온 곳이고, 수화토석은 오행이 나온 곳으로, 수화토석은 본체요, 금목수화토는 작용을 이룬 것이다. 그 작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행이라고 이룬 것이고, 하늘

33)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上,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p. 190-191.
 34)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上,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p. 340-341.
 35)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下,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 638.
 36)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下,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 759.
 37)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下,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p. 964-968.
 38)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下,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p. 1014-1015.
 39)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下,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 1159.
 40) 신홍일, 동의수세보원주해 下,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 1175.
 41) 이제마지음, 박대식역주, 격치고, 청계출판사, 2000, p. 323.
 42) 이제마지음, 박대식역주, 격치고, 청계출판사, 2000, p. 324.
 43) 金碩鎮著, 대산주역강의(3), 한길사, 1999, pp. 290~291.

44) 소강필저, 윤상철역, 皇極經世(강), 대유학당, 2002, p. 1355.
 45) 이제마, 박대식역주, 격치고, 서울, 청계출판사, 2000, p. 53.

땅 사이를 유행하는 것이나, 수화토석이라 하면 오행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금은 돌에서 나고 나무는 흙에서 나니, 돌이 있어야 금이 있고,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있으며, 금은 불로 변혁을 한 뒤에야 이루어지고 나무는 식물의 일종이니, 이것이 어찌 오행을 놓아두고 쓰지 않는 것인가? 황극경세는 그 본체를 썼고, 서경의 홍범은 그 작용을 이룬 것이니, 각각 모두 주장한 바가 있으나 그 귀결은 하나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四象과 五行을 體用관계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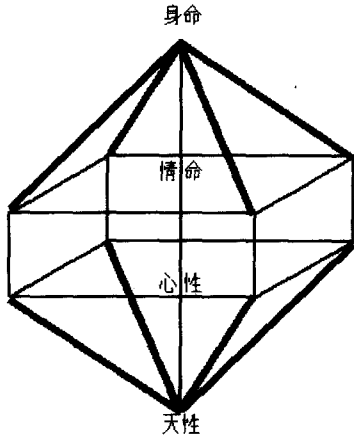


Fig 7. 四象五行 관계도

天性은 기본적 베이스로 저변에 깔려있고, 身命은 행동하며 살아가는 목표이자 욕망으로 상부 꼭지점에 표현하였다. 중앙의 사각형은 性情에 의해 표출되는 九宮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는 “五臟 中에서 心은 中央의 太極인 것이요, 五臟 中에서 肺脾肝腎은 네 가지로 連結되어 버리가 되는 四象인 것이니, 中央의 太極은 聖人の 太極이 衆人の 太極보다 높은 데서 나오는 것이요, 네 가지로 連結되어 버리가 되는 四象은 聖人の 四象이 衆人の 四象에 널리 通하느니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四維之四象의 특징을 개별적 차별성으로 보고, 여기에 中央之太極을 넣어 五行을 삼아, 五行의 특징을 상호적 관계성으로 규정할 때, 각각 네 방위의 사상과 중심의 한 점과 상부 꼭지점과의 관계가 五行이 되는 것이다(Fig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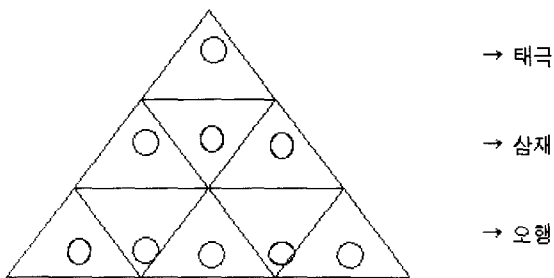


Fig. 8. 135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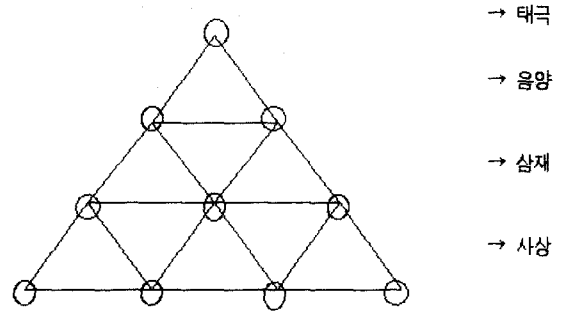


Fig. 9. 1234 개체도

이상에서와 같이 三變에 三變으로 天圓地方人角 中 작용력을 살펴보기위해서 人角法을 사용해보면, 개체를 이해할 때는 太極 陰陽 三才 四象 五行은 동시에 공존하여 이해해야하며, 관계로 이해할 때는 太極 三才 五行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따라서 四象醫學은 개체의 하나하나의 존귀성과 순수성을 부각시켜 이해해야 한다. 太陽人은 少陽人과 太陰人과 少陰人이 있기에 太陽人인 것은 아니며, 太陽人은 그 자체로 太陽人인 것이다. 이와 달리 五行에서 木은 火土金水가 있기에 木이 존재하는 것이지 木만 홀로 존재한다면 木이 아닌 것이다. 火와 土와 金과 水에 비교해서 혹은 상호관계를 통해서 木이 되는 것이다.

3) 數의 이해

六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동양에서는 六氣와 六親을 사용하였다. 天符經47을 보면 八十一字中 한 가운데에 六이란 글자가 있다. 큰 틀의 중심이 六임을 알 수 있다.

一은 太極이고, 二는 陰陽이고, 三은 三才며, 四는 四象의 先天生數로 이해하고, 五는 五行으로 皇極에 해당하여 生數와 成數의 가교역할로 이해하고, 六은 六氣나 六親으로, 七은 七情으로 八은 八卦로, 九는 九宮의 後天成數로 이해할 수 있다.

“大三合六生七八九”를 좀더 살펴보면, 化三이 작용이라면, 大三은 결과이다. 大三은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누어지며, 그 숫자는 1, 2, 3이다. 1은 無匱化一의 주체와 객체이며, 2는 無匱化二의 주체와 객체, 3은 無匱化三의 주체와 객체이다. 다시 말해 1과 2와 3이 합하여 6이 된다는 것이다⁴⁷⁾. 또 六이란 2x3이므로 陰陽과 三才의 관계성에 해당한다. 이것이 大三合의 의미로 생각되어 七八九가 생기는 것이다. “運三四成環五七一妙衍”을 살펴보면 三才와 四象이 어울어져 運하여 둥글게 生하고, 五行과 七情이 六을 중심으로 두고 妙衍하게 成한다. 三才와 四象은 生數로 生을 論하고, 五行과 七情을 成數로 成을 論하였다.

六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물류가 있는데 하나는 六氣이며, 다른 하나는 六親이다.

六氣는 風寒暑濕燥火의 6가지기를 말하며, 六親은 祖父母, 父母, 兄弟, 子女, 妻妾과 我라는 여섯의 인간관계와, 官, 印, 比肩, 孫, 財와 我라는 여섯의 물류체계를 말한다. 六氣와 五行 및

16) 송일병외,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p. 136. “五臟之心은 中央之太極也이요, 五臟之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也이니, 中央之太極은 聖人之太極이 高出於衆人之太極也이요, 四維之四象은 聖人之四象이 旁通於衆人之四象也이니라.”

47) 최의복, 도통하는 천부경, 서울, 신성, 1997, p. 11. “一始無始一析三極無 盡本天一一地一二人 一三一積十鉅無匱化 三天二三地二三人二 三大三合六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一妙 衍萬性萬來用變不動 本本心本太陽昂明人 中天地一一終無終一”

18) 최동환, 천부경, 서울, 지혜의 나무, 2000, pp. 284-285.

六親과 五行의 관계는 많이 알려져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위와같이 生數(1·2·3·4)를 기준으로 我라는 太極을 볼 때, 男女의 陰陽이 있고, 사람이라는 三才가 있고, 四象體質이라는 나면서 정해지는 선천적 개념이 있다. 여기에 五行은 生數와 成數의 매개자로 皇極이라는 개념이 있고, 成數를 기준으로 六·七·八·九이라는 세상이 있고, 十이라는 無極이 있다.

모든 우주만물은 太極이라는 本體의 統一성과, 陰陽이라는 對稱的 差別성을 근간으로 三才라는 天人地의 主體性이 四象이라는 表象의 獨立性으로 生成되어, 五行이라는 상호의 關係성과 六氣나 六親이라는 環境에서 七情이라는 心理를 가지고 八卦라는 範疇과 九宮이라는 綜合性으로 生長收藏하게 된다.

결 론

유학의 흐름상 세상 이치의 초점은 공자이전엔 天을 숭상하여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렸다고 하였으며, 주자 시대엔 모든 것이 性에 달렸다고 하여 性卽理라 하였다. 이것이 조선의 철학자인 서경덕 이항 이이 등을 거치면서 사단칠정의 이론이 형성되게 이르렀는데 이는 사람의 心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 후로 인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무이제마도 心之清濁에 의해 달라지는 性情을 분석하여 四象人을 밝혀내고, 人을 바탕으로 마음에 집중하면서 天에 바탕을 둔 運氣學을 배제하게 된다. 또한 四端에 의한 4法 분류로 四象人을 제창하며, 유학과 의학을 철저히 규명하려 애썼다. 河圖와 洛書의 차이인 金火交易으로 四七論을 해석해보면, 心에서는 四端七情이라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四는 陰이고 七은 陽으로써 그 數를 따오면, 四端과 七情사이의 관계로 사람의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治療방법이며 사람을 보는 方法된다. 또한 四端과 七情을 天地로 나누어 본다면 좀더 선천적인 四端을 天으로, 四端보다 후천적인 七情을 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四端을 통해 天의 河圖는 不變을 의미하니, 四象人은 넷으로 固定不變하게 되는 것이며 七情은 세상의 영향을 三才로 받으므로

7×3=21에서 21유형인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7×4=28로 28유형인이어야 할 듯하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이치는 三顯一藏의 원리에 근거하여 1/4은 숨고, 3/4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四象人을 통찰하는 많은 방법 21유형인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방법은 心을 중심으로 한 체계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우주만물은 太極이라는 本體의 統一성과, 陰陽이라는 對稱的 差別性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근간으로 三才라는 天人地의 主體의 造化性이 四象이라는 表象의 獨立的 個體性을 生成한다. 이는 상호 關係性的인 五行과 六氣 그리고 六親이라는 環境으로부터 七情이라는 心理를 가지고 八卦라는 範疇과 九宮이라는 綜合性으로 生長收藏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주희, 역학계몽, 예문서원, 1999.
2. 송일병외, 사상의학, 집문당, 1997.
3. 주철성 외,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8.
4. 김달래, 이제마의 학문적 연원과 사상의학의 형성시기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2.No.1.1990.
5. 김창민, 류순섭, 이제마 사상체질의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2002.
6. 최병일, 이제마의 본체관과 그 배경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2.No.1.1990.
7. 趙冕晟, 이제마의 격치고중 「儒略」에 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8. 申弘一, 동의수세보원주해 上下, 대성의학사, 2000.
9.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도서출판 한길사, 1999.
10. 崔碩基, 河洛演義, 서울, 여강출판사, 1993.
11. 이제마지음, 박대식역주, 격치고, 청계출판사, 2000.
12. 최의목지음, 도통하는 천부경, 도서출판 신성, 1997.
13. 최동환, 천부경, 지혜의 나무, 2000.
14. 소강철, 윤상철역, 皇極經世, 서울, 대유학당, 2002.